장안사, "폐기물 매립장 건립 폐기 하라"

부산시 항의 방문… 대규모 집회 불사

6만 여 평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 장안사 부지서 1km 거리에 위치 수행 및 생태환경의 심각한 위협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기장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항의 방문한 장안사 주지 무관 스님과 장안읍 대책위원회.

부산 기장 장안사 인근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반대 장안읍 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김정대 · 이하 장안읍대책위)는 6월 30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장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는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위 공동위원장 무관 스님(장안사 주지)을 비롯해 구경민 부산시의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황윤철 기장군의원, 김정대 상임위원장, 홍순미 총괄본부장, 김성구 대책위원장 등 장안읍대책위 관계자와 부산시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동석했다.

무관 스님은 "환경조사에 따르면 해풍의 영향으로 장안사로 악취가 몰려 올 것이란 진단이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며 "폐기물매립장 사업지가 장안사서 불과 1km 떨어져 있어 악취는 천년고찰 장안사 수행환경과 생태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완강한데 계속 절차 강행하는 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다"며 "행정부처가 사업 검토를 지속한다면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 것"이라고 의사를 전달했다.

구경민 부산시의원은 "건립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의견 수렴 과정 속에 정작 피해를 입는 주민들은 2~3년간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사업계획 단계로 법률상 저촉 여부만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며 "계획과 허가는 관계가 없다. 저촉 사항이 확인되면 당연히 진행할 수 없고 이뤄질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생태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장안사와 장안읍대책위는 6월 24일 장안사 설법전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안읍대책위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은 천년고찰 장안사를 비롯해 장안 읍민과 기장 군민 전체를 죽이는 행위"라며 결사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해당 사업지 인근에는 천년고찰 장안사 및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현재 조성 중인 치유의 숲 등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보전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용도까지 바꿀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토지용도까지 바꿔가며 개인 민간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주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부산시에 접수된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 전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장군은 6월 3일 부산시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관리형매립시설) 사업계획서 접수에 따른 기장군 의견협의 공문을 받은 상태다. 접수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71-1번지 총면적 20만 1275㎡(약 6만 886평)에 사업지가 조성되며 이중 매립면적은 10만 2602㎡, 매립용량 311만 7026㎥에 달한다. 매립기간만 약 10년의 규모다. 사업주체는 부산시에 폐기물처리업 사업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검토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한국전쟁71주년 희생자 추모 위령재 열려

가야불교문화원, 6월 25일 김해충혼탑서 개최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은 6월25일 경남 김해시 삼방동 충혼탑 앞에서 '한국전쟁 71주년 희생자 군 · 경 · 민간인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해 불교계가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영가들을 추모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원(대표이사 성남)은 6월 25일 경남 김해시 삼방동 충혼탑 앞에서 '한국전쟁 71주년 희생자 군 · 경 · 민간인 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추모위령재는 1부 △의식 △옹호게 △권공 △영반의식 △배송 △조가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개회선언 △삼귀의례 △반야심경 △찬불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내빈소개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념사 △조사 △발원문 △6 · 25노래 △헌시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 됐다.

행사에는 가야불교문화원 대표이사 성남 스님, 해경사 지현 스님, 선파 스님, 능산 스님 ,록원 스님, 이상국 김해불교사암연합신도회 회장, 박수환 전몰유족회 김해지 회장 등이 동참했다.

대표이사 성남 스님은 "사부대중의 한마음 한뜻을 담아 추모 위령재를 모시게 되어 감사하며 위령재를 모셔 유족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한 송이 꽃으로 산화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영혼들을 되새기자"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건강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25일 보양 건강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관장 류강렬)은 6월 25일 관내에서 보양 건강식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후원 물품은 삼계탕 130개, 육포 130개, 피로회복 음료 250병(200만원 상당)이며 후원은 고려대 여성체육인회, (주)하림,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이 나서 물품을 기부했다. 복지관이 전달한 후원물품은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부산진구 개금3동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황인남 고려대 여성체육인회 회장은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은 항상 행복하다"며 "추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방역물품 및 다양한 후원 활동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강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개금3동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정성껏 후원해주신 물품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운곡 스님, 소외이웃 위한 선명서화展

7월 9~15일 해운대문화회관서

'선명서화'라는 새로운 불교미술을 개척하고 있는 부산 관음사 운곡 스님이 소외 이웃을 위한 전시를 진행한다.

운곡 스님은 7월 9~15일 해운대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선명서화전을 개최한다. 운곡 스님은 선명서화를 디지털 아트에 접목해 새롭게 선보인다. 선명서화 디지털 아트는 스마트폰으로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삽입됐다. 작품에 인쇄된 QR코드를 기기에 인식하면 명상음악 및 금강경 독송 등을 들을 수 있다.

운곡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이웃을 위해 전시를 마련했다"며 "사중득활(死中得活)이란 말처럼 모두 힘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오픈 행사는 7월 9일 오후 1시 30분이다. (010)2458-086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신흥사 아미타불, 국보 심의 본격화

김현모 문화재청장 6월 30일 국가지정 현황 방문 검토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울산 신흥사를 방문하고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9호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불사의 가치를 공유했다.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9호인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6월 30일 울산 신흥사(주지 석운)를 방문해 좌상과 복장유물을 살펴보며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유했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복장 유물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지 석운 스님은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 후기 17세기 전형적인 불상이다. 현재 17세기 작품 대부분이 국가지정문화재가 되었다. 현재 신흥사 삼존좌상은 늦은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심의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사찰 측에서는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정되면 울산 북구에서 유일한 국가지정문화재가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불석으로 조성되었으며 중앙 아미타여래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상도 조성돼 있다.

확인된 복장물은 〈묘법연화경〉과 후령통, 조성기 등이 있으며, 시주자 명단도 주목받고 있다. 시주자 명단은 울산 부호적대장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작성돼 있고 지역명까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주자들은 대부분 신흥사 인근에 거주하던 인물들이다. 또 좌협시 관음보살의 복장에서 나온 '신조조상불기'에 따르면 이들 불상은 1649년 신흥사서 조성됐다.

주지 석운 스님은 "석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가지며 미적인 부분이 섬세하고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국경없는 민들레, "네팔 환자들 숨쉬게"

산소통 구입 위한 모금 활동 펼쳐

네팔 및 아시아 등 산소 지원 구호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울산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가 긴급구호 모금에 나섰다. 울산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는 최근 네팔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산소 지원 구호요청에 따라 산소통 구입모금을 시작했다.

정토마을 국경없는 민들레는 미얀마, 보드가야, 등 세계 오지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 및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매년 의료봉사팀이 오지를 탐방하고 직접 문진 및 치료에 집중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이후 의료구호 활동을 위한 방법을 모색, 아시아 7개국 내 빈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식량과 마스크 지원 등 긴급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코로나 감염에서의 산소 부족으로 현재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품목은 산소 1통당 1만 5000원이며 산소발생기는 자율기부다. (052)255-85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두 다리는 잘렸지만
희망마저 잃을 수 없어요

스리랑카 출신 이주민 노민다씨 쓰레기 분쇄기 수리 중 두 다리 잘려
고액의 양쪽 의족 비용에 또 좌절… 통증과 사고 악몽에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2-725-70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